

인사말씀

대한불교조계종의 사부대중이 2600년의 시간을 넘어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룸비니에서 감개무량한 법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일곱 걸음, 그 첫 걸음마다 피어난 연꽃 위에 우리가 서있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과 생애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제자들이지만 오직 부처로 살겠다는 서원으로 부처님의 첫 걸음을 따라가려 합니다. 오늘의 세상을 부처의 눈으로 보기 위함입니다.

모든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가치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사부대중의 순례는 생명이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실천입니다. 모두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함께 상생하는 것만이 영원한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의 신심과 원력이 참된 진리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순례를 통해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인연을 맺는다면 진리의 불빛아래 더 많은 생명을 보듬어 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생을 다하여 전하신 법은 여전히 진한 감동으로 사부대중의 마음에 깊게 새기겠습니다. 부처님과 좀 더 가까워지겠다는 마음을 진실한 실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걸음을 따라 생명을 살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진력할 것

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수행자로서 불제자로서 우리는 일생에 다시없는 수행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국 불교에도 새로운 희망과 신행과 원력의 힘을 보여주고자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긴 순례길도 끝이 보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도지와 열반지에서 자성과 참회, 불교증흥을 향한 뜨거운 눈물과 각오를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부대중을 환영해 주신 네팔의 국민 여러분과 멀리 우리나라에서 동참해 주신 여러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순례는 온전히 한국불교 사부대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 우리의 간절한 정성과 기도가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순례는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살림과 평화를 향한 축원의 걸음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불기2567(2023)년 3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상월결사 회주 자승